



신라 ‘阿尼’의 의미와 위상

The Meaning and Stature of ‘Ani(阿尼)’ in Silla Dynasty

저자 (Authors)	신선혜 Sin, Sun-Hye
출처 (Source)	한국사학보 , (73), 2018.11, 7-28 (22 pages)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73), 2018.11, 7-28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고려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64765
APA Style	신선혜 (2018). 신라 ‘阿尼’의 의미와 위상. 한국사학보, (73), 7-2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阿尼’의 의미와 위상

신 선 혜*

1. 머리말
2. 都維那娘의 설치와 阿尼의 임명
3. 阿尼의 의미와 역할
4. 맺음말

〈국문초록〉

都維那娘 阿尼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阿尼를 비구니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서 司祭의 성격을 가진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낳았다. 첫째는 阿尼를 比丘尼와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할 경우 이미 都維那娘 설치 이전 시기에 比丘, 沙彌 등 출가자의 구분이 있었음에도 比丘尼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둘째는 阿尼를 신라 여성의 위상과 관련하여 司祭의 성격을 보이는 ar 계통 명칭을 가진 인물과 동일한 성격으로 본다면 통일신라에서도 보이는 阿尼를 칭하는 인물을 여전히 司祭의 성격의 인물로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먼저 『삼국사기』 職官志의 ‘都維那娘 阿尼’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다. 이와 함께 신라의 僧官制는 중국 불교계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음에도 중국 승관에 보이는 尼僧正 및 尼都維那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娘’으로 표현된 여성 승관직을 설치한 점에 주목하였다. 신라 사회에 보이는 娘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체로 왕실 및 귀족 여성들을 가리키며 동시에 결혼한 여성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대표논저 : 2016, 「신라 성덕왕대 禁殺生 下敎의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83, 한국고대사학회 ; 2017, 「신라 중고기 僧職의 설치와 僧團」, 『불교연구』 46, 한국불교연구원 ; 2018, 「원성왕대 政法典의 개편과 正法治國 이념」, 『신라사학보』 43, 신라사학회.

을 가리키는 용어로 파악되었다. 즉 都維那娘은 중국 승관과는 달리 佛事나 法會 등과 같은 興法 활동의 후원자이자 대표자였고, 여기에 왕실 여성들이 임명되면서 娘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阿尼 역시 「戊戌塢作碑」의 ‘都維那 慧藏 阿尼’의 사례와 『삼국사기』 직관지의 기재방식을 통해 ‘-法師’와 같이 일정한 職任을 가진 인물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때의 직임이란 法師가 불법에 밝고 중생을 수행으로 이끌며, 포교의 전문가였던 것과 같이 이에 대비된 阿尼 역시 그러한 존재를 표현한 명칭으로, 법사의 자격이 출, 재가자를 막론하였듯 阿尼도 비구니와는 등치될 수 없는 특별한 직임을 가진 여성출가자 혹은 재가신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 머리말

최근 경주 선도산에서 마애불의 조상기로 추정되는 명문이 발견되었다.¹⁾ 발견된 명문의 글자는 총 8자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중 ‘阿尼’가 관독되어 신라 여성의 출가와 佛事에의 참여 양상 등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삼국유사』 「仙桃聖母隨喜佛事」조의 내용과 아울러 불교와 토착신앙의 융화장소로서 선도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선도산 명문에 앞서 공주 舟尾寺址에서 阿尼로 지칭된 2명의 인물명이 새겨진 비편이 발견된 바 있다.²⁾ 阿尼에 대해 그간 승관제와 관련한 불교사 연구의 이른 시기에 다뤄지거나 혹은 여성사적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연구된 것에 비추어본다면 본 비편의 발견을 계기로 阿尼에 대한 연속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고 하겠다.³⁾ 특히 舟尾寺는 신라의 백

1) 《연합뉴스》 2018.06.04. “선도산 마애불서 조상기 추정 신라 명문 발견”

2) 1967~1968년에 걸친 1, 2차 조사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박용전, 1969, 「공주 舟尾寺址에 관한 연구」, 『백제문화』 3) 1997년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이 시작되면서 다량의 기와와 자기편뿐 만 阿尼라 명문이 있는 비편이 발견되었다(李南奭·李勳, 1999, 『舟尾寺址』, 공주대학교 박물관).

3) 김창석, 2015, 「공주 舟尾寺址와 ‘阿尼’ 명문석편에 관한 고찰」, 『목간과문자』 15 :

제 장악 후 세워진 사찰이다.⁴⁾ 웅천주의 치소로서 군사적, 행정적 요충지였던 공주의 사찰인 만큼 비편에 보이는 인물들의 신분과 인물 간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은 공주지역과 중앙의 관련성을 짐작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만 여기에 보이는 阿尼를 비구니와 동일하게 해석한 점은 선도산 명문 발견에 대한 보고에서와 같다. 이처럼 두 명문은 최근의 발견일 뿐 만 아니라 금석문이라는 당대 사료인 점에서 의의를 가짐에도 기존 사료 및 연구사와 절충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먼저 阿尼를 일반적인 여성출가자로 보는 시각이다. 주지하듯이 여성출가자는 '比丘尼'라 한다. 이는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 산스크리트어 'bhikṣuṇī'가 한자로 음차된 것으로, '沙彌尼', '正學女'와는 달리 여법한 절차에 따라 구법계를 받은 여성출가자를 지칭한다. 그럼에도 신라에서만 유독 그러한 존재들을 '阿尼'로 별칭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미 법흥왕대(535년)에 조성된 「蔚州川前里刻石」 乙卯銘에는 比丘와 沙彌 등 구체적 수지 여부에 따른 출가자의 구분이 발견되는 만큼⁵⁾ 여성출가자의 개념에 대한 인식 역시 신라 사회에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阿尼를 비구니와 구별하여 사용하였던 점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阿尼를 司祭의 성격을 가진 신라 여성의 명칭과 연결 짓는 시각이다. 신라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시조묘 제사를 남해왕의 누이인 阿老에게 주관하게 한 점, 혁거세의 비 알영과 남해왕의 비 운제부인, 즉 阿婁부인이 운제산 성모로 숭배의 대상이 된 기록 등을 토대로 'ar'은 여성을 가리키면서 사제적 성격을 가진 인물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2018, 「공주 舟尾寺址와 신라의 웅주 지배」, 『백제문화』 58.

- 4)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舟尾寺址에서 백제 유물로 추정되는 것은 서쪽 건물지의 북단에서 출토된 8엽연화문 와당 1점이다. 그런데 그 층위가 불안정하고 주변에서 확인된 기와편은 모두 통일신라 후기의 것일 뿐만 아니라 막새기와, 석등의 대석, 그리고 석탑 부재 역시 통일신라기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李南奭·李勳, 1999, 앞의 책, 공주대학교 박물관, 23쪽). 따라서 舟尾寺址에 원래 백제의 사찰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일신라 시기에 초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따라 阿尼가 새겨진 비편 역시 통일신라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한다(김창석, 2015, 앞의 논문, 114~123쪽).
- 5) 「蔚州川前里刻石」 乙卯銘, “乙卯年八月四日聖法興大王節道人比丘僧安及以沙彌僧首乃至居智伐村衆士人等見記”.

보았다.⁶⁾ 이의 연장선상에서 진흥왕대 都維那娘으로 임명된 阿尼 역시 종교적 제사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 보면서 신라 상고기를 중심으로 제사장적 역할을 담당한 여성이 이후 여성출가자를 통솔하는 승관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해석하였다.⁷⁾ 결국 불교와 토착신앙 간 융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都維那娘 阿尼’의 기록이라 보았고, 통일 이후 금석문에 都維那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불교의 계율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점차 사제적 성격의 여성 승관이 없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⁸⁾ 그런데 통일신라 때 건립된 것으로 비정되는 주미사의 비편에 阿尼라는 명칭이 사용된 점은 신라 중대 이후에도 여전히 阿尼라고 칭해진 존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의 사제적 성격이 중대 이후까지 지속된 것인지에는 의문이 생긴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의문은 阿尼가 여성출가자를 가리키는 비구니와 동일한 명칭이었는지, 만약 다른 의미를 가진다면 阿尼라는 명칭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서 시작한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2장에서 『삼국사기』 직관지의 都維那娘 기록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타의 승관과 달리 관직의 연혁이나 임명된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阿尼’만 기재되어 있어 그 성격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승관명에 세속 여성을 칭하는 ‘娘’이 붙은 이유와 阿尼의 의미에 주목하여 당대 여성 불교계의 양상과 직관지 기재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신라에 보이는 阿尼의 사례, 특히 최근 연구된 舟尾寺址 발견 비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阿尼의 의미와 역할에 천착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都維那娘에 임명된 阿尼를 비구니를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보아 그 외 각종 사료에 보이는 阿尼 역시 모두 비구니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阿尼로 지칭된 인물 중 法名을 가지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되므로 그

6) 김택규, 1985, 『한국농경세사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79~82쪽; 나희라, 2005,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121~125쪽.

7) 김영태, 1985, 「백제의 尼衆受戒와 尼僧職 關係」, 『한국문화와 원불교사상』: 1990, 『삼국시대 불교신앙 연구』, 불광출판부; 김영미, 1995,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여성의 신앙생활과 승려들의 여성관』, 『여성신학논집』 1.

8) 김영미, 2000, 「한국 비구니승가의 태동과 전개」, 『한국 비구니승가의 역사와 활동』, 한국비구니연구소, 187~188쪽.

들이 비구니와는 다른 위상 혹은 직임을 가지고 있거나 나아가 재가신도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 글을 통해 주로 승관제 연구의 초기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던 都維那娘 및 신라 여성의 불교적 역할에 대한 성과가 최근 발견된 阿尼의 사례들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都維那娘의 설치와 阿尼의 임명

한국 고대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한국사에서 유일하게 찾아지는 신라 승관 都維那娘의 존재이다. 진흥왕 11년~12년에 걸쳐 설치된 승관의 종류와 승려의 임명에 대해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a) 國統一人[一云寺主] 眞興王十二年 以高句麗惠亮法師爲寺主 都唯那娘一人 阿尼 大都唯那一人 眞興王始以寶良法師爲之 眞德王元年加一人 大書省一人 眞興王以安臧法師爲之 眞德王元年加一人 少年書省二人 元聖王三年 以惠英 梵如二法爲之 州統九人 郡統十八人⁹⁾

신라의 승관 설치에 대해서는 국통을 위시하여 중국 불교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로부터의 불교 전래 사실과 함께 '-統' 계통의 명칭을 통해 연관성이 짐작되는데, 다만 都維那娘의 경우 중국 승관제상 동일한 명칭이 발견되지 않아 신라만의 특징적인 승관으로 파악되었다. 즉 신라 초기 불교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에 많은 논자들이 동의한 것이다.¹⁰⁾ 그런데 중국 불교계에서도

9)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원문의 서술 형식과 어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본 사료를 번역문이 아닌, 원문으로 제시하였다.

10) 이기백, 1954, 「삼국시대 불교전래와 그 사회적 성격」, 『역사학보』 6, 173쪽 : 1986,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 이홍직, 1959, 「新羅僧官制와 佛教政策의 諸問題」, 『白性都博士頌壽紀念 佛敎學論文集』, 663~664쪽 ; 1971,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 中井眞孝, 1971, 「新羅における佛敎統制機關について」, 『朝鮮學報』 59.

여성 승관직을 설치한 사실이 발견된다.

- b) 宋 太始 2년(466)에 勅하여 비구니 寶賢을 尼僧正으로 삼았으며 또 法淨을 京邑尼都維那로 삼았다. 이를 이을만한 인물이 많지 않아 梁·陳·隋·唐대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偏霸의 나라들에는 왕왕 尼統이나 尼正의 명칭이 보인다.¹¹⁾

b) 사료를 통해 尼僧正 및 尼都維那 등이 중국 불교계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고, 尼都維那의 경우 ‘京邑’이 관칭되어 尼僧正이 전국의 尼僧을 통할한 것과 달리 수도에 한정하여 니승들을 관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僧正에도 國僧正, 都邑僧正, 天下僧正 등이 있듯이¹²⁾ 尼都維那에도 통할 범위에 따른 직위의 분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이미 중국 불교계에서는 다양하게 분화된 니승관이 존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신라의 승관제 설치 시기에 동일한 명칭이 아닌 ‘都維那娘’으로 명명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물론 이를 중국 남, 북조 승관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즉 니승관은 남조에만 보이는 것이므로 당시 신라에서는 남조 승관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까닭에 신라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a) 사료에 보이는 승관 중 大書省 역시 북조 불교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승관직으로, 신라와 밀접하게 교류한 梁의 중앙관제에 ‘書省’류가 다수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영향이 지적된 바 있다.¹³⁾ 나아가 앞서 제시한 「蔚州川前里刻石」 乙卯銘에 보이는 道人이 승려를 가리키며, 중국 남조에서 빈번히 사용된 칭호라는 점도 일찍이 밝혀졌다.¹⁴⁾ 도인은

11) 『大宋僧史略』 권중, 尼正附(대정장54, p.243a), “宋太始二年 勅尼寶賢爲尼僧正 又以法淨爲京邑尼都維那 此則承乏之漸 梁陳隋唐少聞其事 偏霸之國往往聞有尼統尼正之名焉”.

12) 『佛祖通記』 권51, 僧職師號(대정장49, p.453c), “晉安帝 秦主以僧碧爲國僧正 法欽爲僧錄 宋文帝勅尼寶賢爲京邑尼僧正 孝武勅道猷爲新安寺法主 勅道溫爲都邑僧正 順帝勅法持爲天下僧正”.

13) 남동신, 2000, 「신라의 승정기구와 승정제도」, 『한국고대사논총』 9, 151쪽.

14) 辛鍾遠, 1987, 「『道人』使用例를 통해 본 남조불교와 한일관계」, 『한국사연구』 59, 8쪽 : 1992, 「6세기 新羅佛敎의 南朝의 性格」, 『新羅初期佛敎史研究』, 민족사.

신라뿐만 아니라 일본 佛教의 南朝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에도 직접적 논거로 사용되고, 고구려에서도 '高麗道人'의 존재가 보여 승려에 대한 호칭으로 광범위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승관 설치의 시기에 고구려를 비롯하여 신라에는 이미 중국 북조뿐 만 아니라 남조 불교계의 정보 역시 유입되어 있었다.¹⁵⁾

결국 여성출가자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尼'가 아닌 '娘'을 붙인 것은 중국 승관과는 다른 직임 내지 위상을 가지는 니승관임을 표명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 '娘'은 세속의 여성을 일컫는 용어이므로 신라에서 尼 대신에 娘을 사용하여 세간에서 친근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본 견해가 주목된다.¹⁶⁾ 이는 '娘'이 사전적 의미로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과 관련된다 고 할 수 있는데, 실상 신라 중고기를 전후하여 娘으로 표현된 인물은 대체로 결혼한 여성으로 나타난다. 미추왕의 비인 光明娘,¹⁷⁾ 자장의 누이인 法乘娘¹⁸⁾, 진지왕과 사통한 桃花娘,¹⁹⁾ 김춘추의 딸 古陀炤娘²⁰⁾ 등으로 이들은 결혼한 여성임과 동시에 왕실 및 귀족 여성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인 娘을 승관명에 붙였다는 점은 이 직에 임명된 승려 역시 그러한 위상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삼국유사』 「射琴匣」조에 따르면 소지왕대에 이미 내전분수승이 존재하고 宮主는 이러한 불교세력을 지원하는 등 불교 전래 이후 왕실 여성은 친불적 성향을 보인다.²¹⁾ 중고기에 이르기까지 왕실 여성의 治病을 승려들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불교가 수용되고 공인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²²⁾ 이러한 과정에서 법흥왕과 함께 법흥왕비

188쪽.

15) 신라 승관제는 초기에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것이 혼입되고, 후에 수·당제의 모방이 있었다고 파악된다(이흥직, 1971, 앞의 책, 483쪽).

16) 김영태, 2000, 「신라의 여성출가와 尼僧職 고찰」, 『明星스님古稀紀念 佛敎學論文集』, 56~57쪽.

17) 『三國遺事』 권1, 王曆.

18) 『三國遺事』 권5, 신주6 明朗神印.

19) 『三國遺事』 권1, 기이1 桃花女 鼻荊郎.

20) 『三國史記』 권41, 열전1 김유신 상.

21) 『三國遺事』 권1, 기이1 射琴匣.

22) 이현주, 2017, 「신라 중고기 왕실여성과 불교」, 『사림』 60, 201~202쪽.

가 출가한 것은 興法の 결정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 c) 『冊府元龜』에 이르기를, “성은 慕이며 이름은 秦이다. 처음 역사를 일으켰던 을묘년에 왕비 역시 영흥사를 창건하였는데, 史氏의 유품을 호모하여 왕과 함께 머리를 깎고 尼가 되었다. 이름을 妙法이라 하고 역시 영흥사에 주석하였는데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였다.²³⁾

범흥왕비의 출가와 관련하여는 『해동고승전』에서도 동일한 기사를 찾을 수 있다.²⁴⁾ 이후 진흥왕비 역시 출가하여 영흥사에서 머물렀던 사실도 발견된다. 승관 설치를 전후한 시기 여성출가자는 왕비를 비롯한 왕실 및 귀족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都維那娘은 尼僧正이나 京邑尼都維那와 같이 교단 통제의 역할을 하는 승관이라기보다는 佛事나 범회 등과 같은 興法 활동의 후원자 및 대표자였고, 여기에 왕실 여성들이 임명되면서 娘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에 임명된 阿尼 역시 왕실 및 귀족 여성으로서 불교에 귀의한 인물을 가리킬 것이다. 다만 그것이 특정인물의 이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阿尼를 대도유나에 관칭된 것으로 보아 신라 여성의 사제적 성격과 결부하여 해석하기도 하였다.²⁵⁾ 그러나 都維那娘이라는 승관명과 함께 阿尼 역시 불교와 관련한 여성을 가리키는 명칭이므로 남성이 임명된 대도유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a)사료의 기재방식 상 국통에는 혜량, 대도유나에는 보량이 임명된 것과 같이 都維那娘에는 阿尼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임명된 것으로 보거나²⁶⁾ 혹은 비구니의 약칭인 尼에 접두어 阿를 붙인 것으로 여성출가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보았다.²⁷⁾ 나아가 “阿摩尼는 母女라는

23) 『三國遺事』卷3, 興法3 原宗興法 厭觸滅身, “冊府元龜云 姓慕 名秦 初興役之乙卯歲 王妃亦創永興寺 慕史氏之遺風 同王落彩爲尼 名妙法 亦住永興寺 有年而終”.

24) 『海東高僧傳』 권1, 유통1 法空, “因名其寺 曰大王興輪寺 以大王所住故也 此新羅剎寺之始 王妃亦奉佛爲比丘尼 住永興寺焉”.

25) 三品彰英(이원호 역), 1995, 『新羅花郎의 研究』, 집문당, 228쪽.

26) 이기백, 1986, 앞의 책, 30쪽.

27) 이흥직, 1959, 앞의 논문.

말인데, 곧 부처님께서 이모(大愛道 比丘尼)를 부른 호칭이므로 尼를 존중한 말이다”라는 데서 阿尼가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²⁸⁾

먼저 阿尼가 人名인지 아니면 불교적 여성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인지에 대해서는 都維那娘이 설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금석문에 등장하는 阿尼의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d) 戊戌年土月朔十四日另冬里村(且/只) 塢塢作記之此成在 〇

人者都唯那寶藏(〇?) 尺干都唯那慧藏(阿尼?) 〇

大工尺 ...²⁹⁾

진지왕 3년(578)에 조성된 「大邱戊戌塢作碑」에는 都維那 등과 함께 일반민들에 의해 塢가 축조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塢의 축조에 도유나가 참여한 점은 중국의 발달된 문물 등 많은 지식을 가진 승려들이 토목공사의 기술적인 면과 연관되어 役事를 지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³⁰⁾ 한편 이 비석은 1946년 발견되어 1958년에 학계에 보고된 뒤 2007년,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阿尺干으로 판독된 부분이 阿尼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다시금 주목되었다. 추가 조사 당시는 阿尼로 판독될 가능성이 제기된 정도였지만, 그 후 이에 동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³¹⁾ 최근 선도산 마애불 조상기 발견에 대한 보고에서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견해가 언급된 만큼³²⁾ 신라 阿尼의 사례로 추가되어도 좋을 것이다.

즉 큰 비석에 등장하는 慧藏의 경우 도유나이면서 阿尼로, 앞의 ‘都維那

28) 김영태, 2000, 앞의 논문, 61~62쪽.

29) 하일식, 2009, 「무술오작비 추가 조사 및 판독 교정」, 『목간과문자』3, 153쪽의 판독을 따랐다.

30) 김기홍, 1991,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00쪽 ; 김창호, 2007, 『한국 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59쪽. 한편 지방에 세워진 사원을 통제하면서 향도조직과 관련을 가진다고 보거나(노중국, 1996,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299쪽) 대규모의 제방사업에 집전의를 거행함으로써 지방민을 교화시키는 승관으로 보기도 한다.(강봉룡, 1997, 「신라의 승관제와 지방지배」, 『전북사학』 11, 59쪽)

31) 김창석, 2018, 앞의 논문, 72~73쪽.

32) 《연합뉴스》 2018.06.04. 앞의 기사.

寶藏 (阿)尺干'과 대구를 이루어 기재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阿尼는 아척 간에 대구되는 것으로, 일단 人名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편 阿尼를 비구니와 동일한 의미로 한정한다면 앞의 보장이 남성출가자임을 의미하는 어떠한 문구도 없는 상황에서 혜장만을 비구니라고 특칭하였다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阿尼가 人名도 아닐 뿐 만 아니라 비구니와 동일한 의미도 아니라는 점은 a)사료의 '都維那娘'에서 이미 '娘'으로써 여성임이 표명되었음에도 阿尼(比丘尼)라고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시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사료의 기재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阿尼를 인명으로 파악한 견해에서도 그러했듯이 都維那娘의 앞뒤에 기재된 승관의 경우는 모두 그 직에 임명된 구체적인 인명을 제시하였다. 반면 都維那娘은 인원수와 阿尼만 기재되어 있다. 언뜻 都維那娘이 곧 阿尼라고 불렀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삼국사기』 직관지의 기재방식 상 異稱이나 別稱 혹은 관부·관직의 연혁 등은 細註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임을 참고한다면³³⁾ 두 명칭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진흥왕대 이후의 상황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승관의 존속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짧은 존속기간과 임명된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유로 신라 승관 설치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삼국유사』 「慈藏定律」조에는 都維那娘만이 빠진 채 기록되었을 것이다.³⁴⁾ 이렇게 본다면 都維那娘 阿尼는 국통, 대도유나, 대서성이었던 惠亮法師, 寶良法師, 安藏法師의 예와 같이 '□□阿尼'가 임명되었으나 人名에 대한 정보는 산실된 채 法師와 같은 칭호만이 남아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그렇다면 法師

33) 박수정, 2017, 「삼국사기 직관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1~132쪽.

34) 『삼국유사』 권4, 의해5 자장정유, “新羅眞興王十一年庚午 以安藏法師爲大書省一人 又有小書省二人 明年辛未 以高麗惠亮法師爲國統 亦云寺主 寶良法師爲大都維那一人 及州統九 郡統十八人等”.

35) 阿尼를 『老子化胡經』의 “十五變之時 西向教化到闍賓 … 剔其鬚髮作道人 陽爲和上陰阿尼 假作父母度僧尼”의 기록을 근거로 和尚에 대비되는 존재로 추측하기도 한다.(勝浦令子, 2003, 「東アジアの尼の地位と役割」, 『日本古代の僧尼と社會』, 吉川弘文館, 186~188쪽) 阿尼를 법사에 대칭되는 명칭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만, 여타 신라에 보이는 阿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수계와 관련된 화상과 대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있다.

에 대칭되는 阿尼의 직임은 무엇이며, 阿尼로 칭해진 인물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 阿尼의 의미와 역할

都維那娘 임명기사 이외에 가장 먼저 찾아지는 阿尼에 대한 기록은 탈해왕비가 남해의 딸인 阿尼夫人으로 나오고,³⁶⁾ 다음으로는 진덕여왕의 어머니 阿尼夫人의 사례가 보인다.³⁷⁾ 탈해왕비의 경우 신라의 불교 전래 이전시기인 만큼 불교와의 관련성 속에서 阿尼라는 명칭을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동일한 인물이 『삼국유사』 왕력에는 阿老夫人으로 기록되어 있어 발음의 유사성에 따른 전승의 착오로 보인다.³⁸⁾ 그러나 진덕여왕 어머니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녀의 이름이 『삼국사기』에 月明夫人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월명부인이 후에 비구니가 된 것을 칭한 雅號였을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³⁹⁾ 그녀의 출가여부는 속단할 수 없으나 불교에 귀의한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 명칭임에는 틀림없다. 즉 '阿尼 月明 夫人'으로 칭해졌던 것이 어느 전승에는 阿尼夫人으로, 다른 전승에는 月明夫人으로 전해진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형태는 최근 발견된 舟尾寺址 비편에 보이는 阿尼의 기재방식과 유사하다.

e) 金良武奈 ...

阿尼仁(召)娘(生) ...

(金)奉昌大舍 ...

阿尼正(孥)娘(生) ...

(金)永昌大舍生□ ...⁴⁰⁾

36) 『삼국유사』 권1 기이1 第四脫解王.

37) 『삼국유사』 권1 왕력 第二十八代 眞德女王.

38)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119쪽.

39) 이현주, 2017, 앞의 논문, 215쪽.

40)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115쪽의 판독에 따랐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비편에 보이는 5명의 관계를 김양부가 김봉창과 김영창 형제의 아버지이며, 仁(召)娘은 그들의 어머니로서 김양무의 부인이고, 正(孚)娘은 김봉창의 부인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주미사에서 불사를 거행하고 그 보시자임을 기록하여 현세의 이익을 기원하기 위해 이 비편을 만들었다고 이해되었다. 아울러 인소와 정노는 출가하기 전의 俗名으로, 이들은 비록 출가했지만 3인의 남성과 친족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인연으로 불사에 참여하였고, 그들의 이름을 法名 대신 명단을 쓸 때 俗名으로 기록했다고 보았다.⁴¹⁾ 다소 장황하게 기존 연구성과를 인용하였지만 이 비편과 관련한 유일한 연구인 까닭에 阿尼의 실체뿐 만 아니라 인물간 관계까지 비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阿尼인 두 인물이 ‘阿尼 仁召 娘’, ‘阿尼 正孚 娘’으로 기재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阿尼 月明 夫人’의 기재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왕실 및 귀족 여성,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 ‘娘’으로 칭해졌음을 생각해 본다면 곧 ‘娘’이 ‘夫人’과 대치될 수 있는 명칭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인소, 정노, 월명라는 인명을 모두 범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선 연구에서도 비편 속 인명을 속명으로 보았는데, 이는 범명을 가진 여성출가자의 경우는 대체로 ‘-尼’로 표현되는 것과 비교된다.

- f-1) 진평왕대에 지혜라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어진 행적이 많았다. 안흥사에 거주하여 새로 불전을 수리하려다가 힘이 미치지 못했다.⁴²⁾
- f-2) 戊申 7월에 香照師와 圓寂尼가 재산을 회사하여 탐을 세웠다.⁴³⁾
- f-3) 김유신의 부인이었던 法淨尼에게 청하여 二十千金을 빌어서 상선을 타고 入唐, 洪州 開元寺에 부치었다. ... 이 절에 거주하던 張淨滿에게 二十千金을 주고 六祖의 頂相을 취하여다가 法淨尼가 주하는 靈妙寺에서 야반을 타서 공양하였다.⁴⁴⁾

41)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117~123쪽.

42) 『삼국유사』 권5, 감동7 仙桃聖母隨喜佛事, “眞平王朝 有比丘尼名智惠 多賢行 住安興寺 擬新修佛殿而力未也”.

43) 「法光寺石塔記」, “戊申七月香” 照師圓寂尼捨財建塔”.

44) 이는忽滑谷快天(정호경 역), 『朝鮮禪教史』(1978, 寶蓮閣, 105~106쪽)에 실린 「智

일련의 f)사료뿐 만 아니라 앞서 c)사료에서도 범흥왕비가 묘법이라는 범명을 받고 비구니가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f-3)사료에서 法淨尼는 김유신의 처 智炤夫人으로 보이는데,⁴⁵⁾ 그녀가 출가한 후 法淨이라는 범명을 받고 비구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阿尼는 비구니와는 구분되는, 즉 法名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혹은 재가신도를 지칭하는 명칭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짐쳐진다.

특히 재가신도일 가능성을 확대해 본다면 d)사료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도유나인 寶藏이 阿尺干이라는 관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으로, 승려가 관등을 지니는 경우를 이외에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점은 일찍이 도유나가 僧官 중에서도 세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특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다뤄진 바 있지만,⁴⁶⁾ 이보다는 오히려 도유나가 승려가 아닐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佛事가 빈번했던 중국 북위시대 山東일대의 佛教界와 관련하여 이해된다.⁴⁷⁾ 산둥일대는 북중국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포함한 주변 여러 나라와도 불교교류가 있었는데, 당시 고구려를 통해 북조 불교와 접하고 있었던 신라에서 북조불교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僧官制를 비롯하여 다수 발견되는 사실이다.

이러한 山東 造像供養의 특색은 그 대부분이 서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신앙단체에 의한 造像이 동시기 어느 지역보다도 많았다는 점이다. 이때의 신앙단체는 신라의 香徒와 같은 성격으로 邑義라 불리는데, 그 구성원 중 읍의의 사무를 관장하는 직명인 都維那, 維那 등이 재가신자의 직역으로 파악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원래 도유나 계통은 북위에서 僧官名으로 출가승을 가리키에도 僧官의 명칭이 재가신자의 집단적 造像사업에도 전용되고 있는 것이다.⁴⁸⁾

異山雙溪寺記」의 일부이다.

45)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하에 “後智炤夫人 落髮衣褐 爲比丘尼”라 되어 있다.

46) 이수훈, 1990, 「신라 僧官制의 성립과 기능」, 『역사와 세계』 14, 26~27쪽.

47) 산둥일대 불사에 대해 金文經, 1984, 『唐代的 社會와 宗教』, 송전대학교 출판부, 92~118쪽 참고.

48)塚本善隆, 1942, 『支那佛教史研究』 北魏篇, 弘文堂書房, 499~500쪽.

아울러 正光4년(523) 7월 29일 歷城 黃石崖에 敬造된 석굴상 24구의 조상명에, “大魏 正光 四年七月廿九日 法義兄弟姊妹等 敬造石窟像卅四軀 悉以成就 歷名提記 釋伏宋 同正鋤 維那主劉愛女 維那主沐瓮姬(下略)” 등 유나주가 재가신자에 冠稱된 사례가 보인다. 維那와 같은 직역이 아니었던가 생각되는 維那主란 명칭도 보이는데, 이 역시 여성 在家信徒의 직역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戊戌塲作碑」의 都維那는 工役의 감독을 담당한 在家信徒의 칭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중국에서의 예와 같이 향도의 불사활동에 유나주는 명칭이 사용된 점은 불교에 관한 일의 담당자라는 의미로 승관의 권위를 효율적 佛事 운영과 감독에 차용한 것이라 하겠다.⁴⁹⁾

물론 舟尾寺址 비편의 경우 인소랑, 정노랑을 재가신도로 본다면 김양부를 비롯한 3명의 남성들에게도 淸信士 혹은 優婆塞와 같은 명칭이 기재되었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지만,⁵⁰⁾ 비편 제작과 시기를 같이 하여 당시 인소랑, 정노랑이 독실한 불교신도가 되어 본 불사를 주관하였기에 阿尼로 特稱되었고, 그들이 자신들을 포함하여 남성 3명과 친족 전체의 성불을 원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재가신도의 여부는 명확히 결론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阿尼가 비구니와는 다른 존재를 지칭한 명칭인 것은 파악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중앙승관인 都維那娘에 임명된 阿尼 역시 그러한 존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都維那娘 阿尼를 당대 인물로 비정한 기존 연구에서는 앞서 살핀 진덕왕의 어머니 阿尼夫人으로 보거나,⁵¹⁾ 법흥왕비인 妙法尼⁵²⁾ 혹은 진흥왕의 모후인 지소부인으로 보는 견해⁵³⁾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진흥왕 이후 진흥왕비, 진지왕비, 진평왕비도 阿尼가 되어 교단을 통솔하였을 것으

49) 이상 「무술오작비」의 도유나가 재가신도일 가능성은 신선훈, 2016, 「신라 중고기 불교교단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3~74쪽에서 주장된 바 있다. 다만 이때는 혜장 역시 아척간으로 판독한 견해에 따랐으나, 본고를 통해 阿尼로 판독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한다.

50)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122쪽.

51) 이병도, 1983,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326쪽.

52) 김영태, 2000, 앞의 논문.

53) 이현주, 2017, 앞의 논문.

로 추측되기도 하였다.⁵⁴⁾ 이 중 진덕왕의 어머니는 진흥왕대와 연대가 떨어져 있고, 진흥왕비를 비롯한 중고기 왕비들이 모두 都維那娘이었다고 한다면 『삼국유사』의 승관제 기록에 都維那娘의 연혁이나 인명이 누락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이 두 가지 견해는 동의하기 힘들다. 즉 법흥왕비와 진흥왕의 모후로 대상이 좁혀지는데, 후자의 경우 그녀는 왕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출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阿尼로 지칭되었음에도 법명을 비롯한 인명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진흥왕은 재위 11년, 親政을 시작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위해 都維那娘의 직을 설치하여 예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만 都維那娘 설치의 의의는 예우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가 阿尼로 지칭된 점을 통해 법사와 대등할 위상을 가지고 불교계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사란 '指通曉佛法 又能引導衆生修行之人'을 의미하는 것으로,⁵⁵⁾ 자세한 법사의 자격과 직임에 대해서는 『법화경』 법사품에 자세하다. 그들의 직임이 불법에 밝고 중생을 수행으로 이끄는 것임은 명칭을 통해서도 짐작되지만, 그들의 자격이 반드시 출가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다음과 같은 경전의 내용은 阿尼의 성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 g) 약왕이여, 만일 어떤 악한 사람이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1겁 동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비방하고 욕하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볍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는 집에 있는 사람이 나 출가한 사람을 한 마디의 악한 말로 비방하고 헐뜯는다면 그 죄는 훨씬 무거우니라.⁵⁶⁾

『법화경』에서는 경전에 대한 신앙의 실천적 역할의 주체자가 法師이다. 그리고 법사들에게는 경전이 出家와 在家를 불문한 최우선의 의지처가 되어 경전의 편찬에서부터 흥포는 물론 교화와 포교의 전문가라 할 수 있

54) 이기운, 2003, 「조선시대 왕실의 비구니원의 설치와 실행」, 『역사학보』 178, 29~58쪽 ; 김선주, 2005, 「신라 사회 여성의 정치활동」, 『사학연구』 77, 1~30쪽.

55) 『불광사전』 法師.

56) 『法華經』 권4, 법사품(대장장9, p.30c), “藥王 若有惡人 以不善心 於一劫中現於佛前 常毀罵佛 其罪尙輕 若人以一惡言 毀咎在家 出家讀誦法華經者 其罪甚重”.

다.⁵⁷⁾ 이러한 법사의 존재는 신라에서도 찾아지는데, 특히 불교 전래를 전후한 시기에 법사로 칭해진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興法의 활약상을 보임과 동시에 정식의 출가자로서 인식되지 못한 존재로 기록되어 있다.

h-1) 古記에 (阿道)法師가 처음 毛祿의 집에 왔을 때 친지가 진동하니 사람들이 僧이란 이름을 모르고 阿頭多麼라 하였다. 多麼는 우리말로 중이라는 것이니 沙彌라는 말과 같다.⁵⁸⁾

h-2) 蕭氏 梁武帝 普通 8年 丁未에 서천축의 달마가 金陵에 오던 해다. 이해에 또한 朗智法師가 처음으로 靈鷲山에 법장을 열었으니 大敎의 興衰가 반드시 멀고 가까움이 동시에 서로 감응하는 바가 있음을 여기서 믿을 수 있다.⁵⁹⁾

h-1)사료는 아도가 처음 신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가 승려인지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불교의 初傳者가 되었음을 전해준다. h-2)사료 역시 불교 초전과 관련되는데, 남지의 활동연대에 대한 의문은 있으나 불교 전래 초기 『법화경』 사상의 양상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활동상을 보인 남지를 법사로 칭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렇듯 일찍이 신라로 유입된 『법화경』의 사상은 흥법의 기반을 마련함에 일조하였고, 그것을 담당한 법사의 존재도 포교의 전문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여성출가자 혹은 재가신도들에게 阿尼 역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존재였기에 비구니라는 출가여부에 따른 구분이 아닌, 阿尼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불렸고, 그들 중 1인을 都維那娘으로 임명하여 興法의 역할을 맡겼던 것이다.⁶⁰⁾

57) 靜谷正雄, 1954, 「法師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1, 131~132쪽.

58) 『삼국유사』 권3, 興법3 阿道基羅, “古記云 法師初來毛祿家 時天地震驚 時人不知僧名而云阿頭多麼 多麼者乃鄉言之稱僧也 猶言沙彌也”.

59) 『삼국유사』 권3, 興법3 原宗興法 猷嚳滅身, “卽蕭梁普通八年丁未 西竺達摩來金陵之歲也 是年 朗智法師亦始住靈鷲山開法 則大敎興衰 必遠近相感一時 於此可信”.

60) 일본의 최초 출가자는 善信尼 등 3명의 여성인데, 이때 善信尼를 善信阿尼로 지칭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日本書紀』 권21, 崇峻天皇 卽位前紀 6월, “甲子 善信阿尼等謂大臣曰 出家之途 以戒爲本 願向百濟學受戒法).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일본에 아직 여법한 수계법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가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 승관의 명칭인 尼都維那와 같이 비구니를 특칭하지 않고 세속 여성을 지칭하는 娘으로 都維那娘의 명칭을 삼은 이유도 다시금 설명될 수 있다. 즉 출가의 여부를 떠나 여성의 출, 재가자 모두를 아우르는 역할로서 尼가 아닌, 阿尼가 都維那娘으로 임명되었고 그 직임 역시 승려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중국 승관의 성격과 달리 불교 흥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娘이라 칭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최근 공주 舟尾寺址에서 발견된 碑片과 경주 선도산 마애불 조성기로 추정되는 銘文에는 공통적으로 阿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 만큼 주로 신라 僧官制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진 都維那娘 阿尼의 실체에 대한 관심의 환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판독된 글자 수의 소략함 때문일 뿐만 아니라 阿尼를 여성 출가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규정하여 더 이상의 논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첫째는 阿尼를 比丘尼와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할 경우 이미 都維那娘 설치 이전 시기에 比丘, 沙彌 등 출가자의 구분이 있었음에도 比丘尼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둘째는 阿尼를 신라 여성의 위상과 관련하여 司祭의 성격을 보이는 ar 계통 명칭을 가진 인물과 동일한 성격으로 본다면 통일신라에서도 보이는 阿尼를 칭하는 인물을 여전히 司祭의 성격의 인물로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먼저 『삼국사기』 職官志의 ‘都維那娘 阿尼’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신라의 僧官制는 중국 불교계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음에도 중국 승관에 보이는 尼僧正 및 尼都維那와 같은 명칭을 사

이에 초기에는 비구니로 불려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교 전래와 흥법의 주체자로서 활동하는 점 등을 통해 본다면 그들이 阿尼로 지칭된 것은 신라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용하지 않고 '娘'으로 표현된 여성 승관직을 설치한 점이 주목되었다. 이에 신라 사회에 보이는 娘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체로 왕실 및 귀족 여성들을 가리키며 동시에 결혼한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파악되었다. 즉 都維那娘은 중국 승관과는 달리 佛事나 法會 등과 같은 興法 활동의 후원자이자 대표자였고, 여기에 왕실 여성들이 임명되면서 娘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阿尼 역시 「戊戌塢作碑」의 '都維那 慧藏 阿尼'의 사례와 『삼국사기』 직관지의 기재방식을 통해 '-法師'와 같이 일정한 職任을 가진 인물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때의 직임이란 法師가 불법에 밝고 중생을 수행으로 이끌며, 포교의 전문가였던 것과 같이 이에 대비된 阿尼 역시 그러한 존재를 표현한 명칭으로, 법사의 자격이 출, 재가자를 막론하였듯 阿尼도 비구니와는 등치될 수 없는 특별한 직임을 가진 여성출가자 혹은 재가신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파악되었다.

본고 역시 기존의 사료를 이용하고 선행 연구성과에 동의 혹은 이를 보충하는 수준이라 하겠지만, 阿尼를 비구니와 구별되는 명칭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재가신도일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주제어 : 阿尼, 都維那娘, 比丘尼, 法師, 舟尾寺址, 仙桃山, 戊戌塢作碑

논문투고일 : 2018. 09. 30

논문심사시작일 : 2018. 10. 11

논문게재확정일 : 2018. 10. 30

참고문헌

1. 자료

『三國遺事』, 『三國史記』, 『海東高僧傳』, 『大宋僧史略』, 『法華經』, 『日本書紀』,
『佛祖通記』

2. 저서

김기홍, 1991,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金文經, 1984, 『唐代的 社會와 宗教』, 숭전대학교 출판부.
김창호, 2007, 『한국 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김택규, 1985,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나희라, 2005,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노중국, 1996,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三品彰英(이원호 역), 1995, 『新羅花郎의 研究』, 집문당.
李南奭·李勳, 1999, 『舟尾寺址』, 공주대학교 박물관.
이병도, 1983,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忽滑谷快天(정호경 역), 1978, 『朝鮮禪敎史』, 寶蓮閣.
塚本善隆, 1942, 『支那佛教史研究』 北魏篇, 弘文堂書房.

3. 논문

강봉룡, 1997, 「신라의 승관제와 지방지배」, 『전북사학』 11.
김선주, 2005, 「신라 사회 여성의 정치활동」, 『사학연구』 77.
김영미, 1995,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여성의 신앙생활과 승려들의 여성관」, 『여
성신학논집』 1.
_____, 2000, 「한국 비구니승가의 태동과 전개」, 『한국 비구니승가의 역사와 활
동』, 한국비구니연구소.
김영태, 1985, 「백제의 尼衆受戒와 尼僧職 關係」, 『한국문화와 원불교사상』 :
1990, 『삼국시대 불교신앙 연구』, 불광출판부.
_____, 2000, 「신라의 여성출가와 尼僧職 고찰」, 『明星스님古稀紀念 佛敎學論文

集』.

- 김창석, 2015, 「공주 舟尾寺址와 '阿尼' 명문석판에 관한 고찰」, 『목간과문자』 15.
- _____, 2018, 「공주 舟尾寺址와 신라의 웅주 지배」, 『백제문화』 58.
- 남동신, 2000, 「신라의 승정기구와 승정제도」, 『한국고대사논총』 9.
- 박수정, 2017, 「삼국사기 직관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용전, 1969, 「공주 舟尾寺址에 관한 연구」, 『백제문화』 3.
- 신선혜, 2016, 「신라 중고기 불교교단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辛鍾遠, 1987, 「「道人」使用例를 통해 본 남조불교와 한일관계」, 『한국사연구』 59.
- _____, 1992, 「6세기 新羅佛敎의 南朝의 性格」, 『新羅初期佛敎史研究』, 민족사.
- 이기백, 1954, 「삼국시대 불교전래와 그 사회적 성격」, 『역사학보』 6 : 1986,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 이기운, 2003, 「조선시대 왕실의 비구니원의 설치와 실행」, 『역사학보』 178.
- 이수훈, 1990, 「신라 僧官制의 성립과 기능」, 『역사와 세계』 14.
- 이흥직, 1959, 「新羅僧官制와 佛敎政策의 諸問題」, 『白性郁博士頌壽紀念 佛敎學論文集』 : 1971,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 이현주, 2017, 「신라 중고기 왕실여성과 불교」, 『사람』 60.
- 하일식, 2009, 「무술오작비 추가 조사 및 판독 교정」, 『목간과문자』 3.
- 勝浦令子, 2003, 「東アジアの尼の地位と役割」, 『日本古代の僧尼と社會』, 吉川弘文館.
- 靜谷正雄, 1954, 「法師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1.
- 中井眞孝, 1971, 「新羅における佛敎統制機關について」, 『朝鮮學報』 59.

4. 신문기사

《연합뉴스》 2018.06.04. “선도산마애불서 조상기 추정 신라 명문 발견”

The Meaning and Stature of ‘Ani(阿尼)’ in Silla Dynasty

Sin, Sun-Hye

The two similarities of the pieces of epitaph, which is founded in ‘Jumisaji(舟尾寺址)’ at Gongju, and the inscription, which is about the construction of rock cliff of Buddha in Gyeongju’s Seondo mountain, is that they both contain information about ‘Ani(阿尼)’. While there were some interest in the true nature of ‘Ani’ and ‘Doyoonarang(都維那娘)’ during the early research period of ‘Seungwanjae(僧官制)’, there hasn’t been a professional research on ‘Ani’ not only because of the minimal amount of the word’s appearance, but also because the word ‘Ani’ has been fixed as a noun referring to women who are getting married.

This essay has begun with two doubts. The first is if ‘Ani’ and ‘bhikehuni(比丘尼)’ is set as identical concept, then why isn’t the term ‘bhikehuni’ used even though there were a classification of married women such as ‘bhikkhu(比丘)’ and ‘Sami(沙彌)’ before the establishment of ‘Doyoonarang’. The second is if we can view the ‘priest-like’ characters that have names with ‘ar’ as identical to the women’s stature of ‘Ani’, then can we view the characters called as ‘Ani’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as having identical ‘priest-like’ characteristics.

For the discussion, we have reviewed the record of ‘Doyoonarang Ani’ in the ‘Jikguanji(職官志)’ of ‘Samguk Sagi(三國史記)’. The interesting point with Silla is that although it received significant

influence from China's Buddhism, it did not use Chinese priesthood terms like 'Niseungjung(尼僧正)' or 'Nidoyna(尼都維那)' as used in China, but rather used the term 'rang(娘)' for female priesthood. Furthermore after reviewing the term 'rang' used in Silla society, it has been found that the term was used for women in the royal family and for women who are married. Therefore, unlike China's priesthood, 'Doyoonarang'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spread of Buddhism, activities such as Buddhist events(佛事), and as women from the royal family was appointed in this position, the position was given the meaning of 'rang'. It could also be seen that the term 'Ani' is referring to characters that have official duties like 'Beopsa(法師)' from the descriptions in 'Doyona Hyejang Ani(都維那 慧藏阿尼)' from 'Musul Ohjakbi(戊戌塲作碑)' and the way its termed in 'Samguk Sagi'.

Just like how 'Beopsa' was insightful in Buddhism and led people to enlightenment as the expert of evangelism, the official duties of 'Ani' were termed for characters of similar position. Just as 'Beopsa' had both married or remarried person, 'Ani' has been found that it refers to married female who had a special position that is not equal to that of 'bhikehuni'.

Key Words : Ani, Doyoonarang, bhikehuni, Beopsa, Jumisaji, Seondo mountain, Musul Ohjakbi